

# 전업주부 스트레스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및 선택속성의 구조적 관계 - 서울, 경기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

김난희 · 박영일<sup>1</sup> · 주나미<sup>1†</sup>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 <sup>1</sup>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Structural Relations of Convenience-Processed Food Purchasing Attitude and Selection Attribute according to Housewives' Stress - Focus on Housewives in Seoul and Gyeonggi Areas -

Nanhee Kim · Young Il Park<sup>1</sup> · Nami Joo<sup>1†</sup>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sup>1</sup>Dept. of Food an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on how stress impacts the processed convenience foods purchase attitudes and the selection attributes of housewives. The stress consists of 3 factors, which were housework stress, family relation stress and economic stress. The processed convenience food purchase attitude consisted of 2 factors, which were peripheral influence purchase and conviction purchase. The processed convenience food selection attribute consisted of 4 factors, which were quality, convenience, packaging and price. Factor loading confirmation and reliability test were conducted, and the reliability was confirmed with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for all the factors exceeding 0.5. The high stress levels showed significantly high stress factors of housework, family relations and economic stress ( $P < 0.001$ ). The high stress group was shown to make purchases by recognizing peripheral influences ( $P < 0.01$ ). When the selection properties of processed convenience foods depending on different stress levels were examined, it was revealed that among the three groups, the low stress group least considered the price aspect ( $P < 0.01$ ). After deducting the factors,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was used to conduct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verifying validit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determine the path coefficient. From the processed convenience foods purchase attitude, the peripheral influence purchase had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s on convenience ( $P < 0.05$ ). Also, conviction purchase was shown t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s on quality ( $P < 0.05$ ). Housework and family relation stress were shown to have negative (-) effects on processed convenience foods selection attribute, and economic stress was shown to have positive (+) effects, although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revealed.

**Key words** : convenience-processed food, purchasing attitude, purchasing selection, housewives, stress, AMOS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접수일 : 2019년 6월 27일, 수정일 : 2019년 8월 27일, 채택일 : 2019년 8월 29일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Nami Joo,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00 Cheongpa-ro 47-gil, Youngsan-gu, Seoul 04310, Korea

Tel : 82-2-710-9471, Fax : 82-2-710-9479, E-mail : namij@sookmyung.ac.kr, ORCID : <https://orcid.org/0000-0002-8205-0399>

## 서 론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간편성을 추구하는 식생활 양식이 확대되고 있다(Seo & Kim 2016).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2014)에 따르면 간편식 구입 경험은 2012년 55.3%에서 2014년 72.6%로 증가했으며, 식품 구입 시 가공식품의 비중은 2017년 25.2%로 2016년 26.0%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간편식 중 밥류, 반찬류, 찌개·탕류 등의 구입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이러한 변화에 맞춰 즉석가공식품, 즉석요리식품, 편의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매 후 바로 먹거나 간편하게 조리해 먹는 가정식사 대용식(Home meal replacement, HMR)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Ko 2012; Seo & Kim 2016).

특히, 가정에서 식생활을 주로 담당하는 주부들의 사회참여 증가, 소비의식과 행동변화 등은 주부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변화를 주며 식생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Hong 2011). 주부의 바람직한 식생활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영양섭취와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주부들의 식품에 대한 이해와 선택의 문제는 가족의 영양섭취를 포함해 성장기 아이들의 건전한 성품, 신체 발육, 질병 예방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in 2011).

주부인 여성들의 경우, 사회 여건상 가사업무와 육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문화적 요인이 가중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연구되어 왔다(Kim 2006).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한국 성인 여성의 우울증 유무에 따른 건강상태 및 식생활을 비교한 연구(Won 2013)에 따르면 우울감이 있는 여성 중 특히, 30~64세에서 식생활 행태가 유의하게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영양소 적정 섭취비(Nutriton adequacy ratio, NAR)와 영양밀도지수(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각각의 연령대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질이 낮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과 식생활 행태 및 식사의 질에 상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의 식생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는 주부의 의식구조는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족 전체의 영양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부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건강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스트레스와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선택속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주부의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식품 구매행동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주부의 스트레스가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및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 여성문화센터를 다니고 있는 가정주부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SMWU-1807-HR-070).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관심을 갖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QR코드를 배부하여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8년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32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6부를 제외한 총 314부를 통계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 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나이, 결혼 연수, 가족의 수에 관한 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및 식행동은 규칙적인 식사, 외식 빈도, 평상시 식사량, 식욕에 관한 4항목으로 구성하였고(Seo 2007; Kim 2010), 가공편의식품 이용 현황은 구매 빈도, 구

매 장소, 구매 용도, 선호하는 유형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Kang 2014; Yang 2018). 또한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McCubbin 등(1979)이 제안한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도구와 선행연구(Oh 2007; Nam 2008)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주부의 스트레스 척도는 가족관계, 재정, 건강, 가사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으로 각 문항을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Kim 2014; Jung 2016) 10항목과 가공편의식품 선택속성(Lee 2017; Shim 2018) 1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주부의 스트레스와 가공편의식품 구매의 관계분석을 위해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요인이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및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스트레스 정도가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와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 정도를 독립변수,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와 선택속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둘째,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이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와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선택속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 1.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은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주부의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는 가공편의식품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은 가공편의식품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 23.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다항목에 대하여 단일 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및 선택속성은 One Way ANOVA 분석 후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Scheffé test를 통하여 사후 검증하였다.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및 선택속성은 AMOS 통계 프로그램(ver 18.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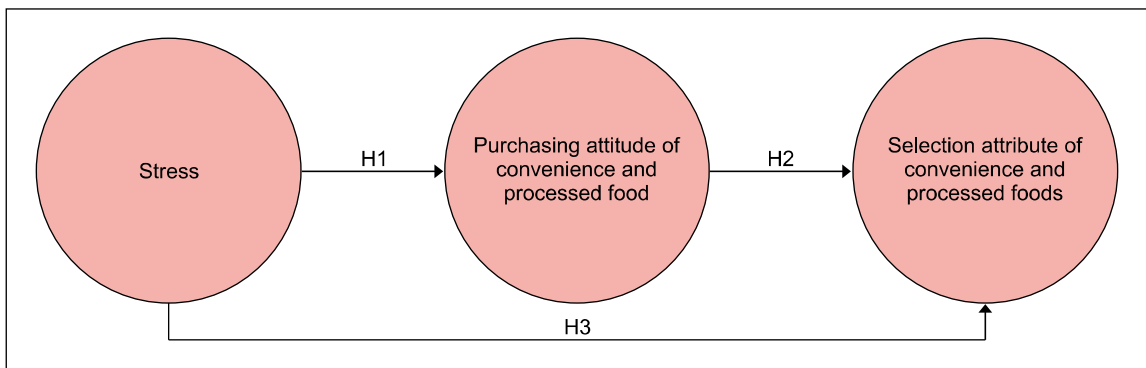


Figure 1. The research model and research hypothesis.

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결 과

###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314명으로 나이는 50대가 137명(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30.6%), 30대(18.8%), 60대(3.8%), 20대(3.2%)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수는 20년 이상이 180명(57.3%)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이상~20년 미만(13.1%), 5년 미만(12.7%), 5년 이상~10년 미만(8.9%), 10년 이상~15년 미만(8.0%) 순으로 많았다. 가족의 수는 4명이 150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3명(22.9%), 5명 이상(15.6%), 2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stress. (N=314)

Variables	Criteria	Total
Age (yrs)	20 ≤ ~ < 30	10 ( 3.2)
	30 ≤ ~ < 40	59 (18.8)
	40 ≤ ~ < 50	96 (30.6)
	50 ≤ ~ < 60	137 (43.6)
	60 ≤	12 ( 3.8)
	Period of marriage (yrs)	< 5
	5 ≤ ~ < 10	28 ( 8.9)
	10 ≤ ~ < 15	25 ( 8.0)
	15 ≤ ~ < 20	41 (13.1)
	20 ≤	180 (57.3)
Number of family	2	43 (13.7)
	3	72 (22.9)
	4	150 (47.8)
	5 ≤	49 (15.6)

### 2. 식습관 및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규칙적 식사 여부를 살펴보면,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않은 경우가 52.2%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경우(47.8%)보다 많아 과반수가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외식 빈도는 주 1~2회가 69.4%로 가장 많았으며, 주 3~4회(16.6%), 하지 않음(10.8%), 주 5회 이상(3.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소 식사량은 '적당히 먹는다'가 6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조금 먹는다'가 15.0%로 많았다. 평소 식욕은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식욕이 좋다(35.0%)'와 '매우 좋다(5.4%)'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식욕이 좋은 편이지만 그에 따른 평소 식사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3. 가공편의식품 이용 현황

가공편의식품의 구매 빈도는 주 1~2회가 60.5%로

**Table 2.** Eating habits and eating behaviors of the subjects. (N=314)

Variables	Criteria	N (%)
Regularity	Yes	150 (47.8)
	No	164 (52.2)
Frequency of dining-out (times/week)	None	34 (10.8)
	1~2	218 (69.4)
	3~4	52 (16.6)
	5 ≤	10 ( 3.2)
Amount of eating meal	Too little	4 ( 1.3)
	Little	47 (15.0)
	Moderate	218 (69.4)
	Much	43 (13.7)
	Too much	2 ( 0.6)
Appetite	Too little	1 ( 0.3)
	Little	10 ( 3.2)
	Moderate	176 (56.1)
	Much	110 (35.0)
	Too much	17 ( 5.4)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주 3~4회(24.2%), 구매하지 않음(10.5%), 거의 매일(4.8%) 순으로 높았다. 구매 장소로는 대부분이 대형할인마트(61.5%)를 이용하고 있었고, 일반마트(28.7%)와 인터넷(4.1%), 편의점(3.8%), 백화점(0.6%)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용도는 가정 식사용(61.1%)이 가장 많았으며, 간식으로 이용하는 경우(29.6%), 캠핑·여행용(5.4%), 도시락(2.5%), 손님 접대용(1.3%)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가공편의식품의 유형으로는 ‘간단 조리 후 먹는 음식’이 58.9%로 가장 많았으며, ‘가열 후 먹는 음식’이 25.8%, ‘바로 먹는 음식’이 14.6% 순으로 높았다(Table 3).

#### 4.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집단 구분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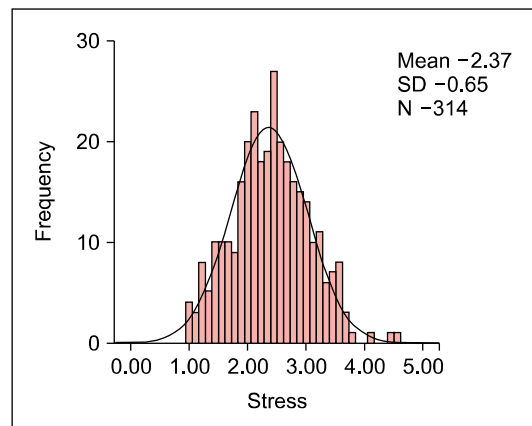
**Table 3.** Convenience and processed foods consumption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stress. (N=314)

Variables	Criteria	N(%)
Purchase frequency (times/week)	1~2	190 (60.5)
	3~4	76 (24.2)
	Almost everyday	15 ( 4.8)
	None	33 (10.5)
Purchase place	Wholesale market	193 (61.5)
	Convenience Store	12 ( 3.8)
	Department Store	2 ( 0.6)
	Supermarket	90 (28.7)
	On-line	13 ( 4.1)
	Others	4 ( 1.3)
	Purchase purpose	Home meal
Guest reception		4 ( 1.3)
Between meals		93 (29.6)
Packed lunch		8 ( 2.5)
Camping/Travel		17 ( 5.4)
Preferred type	Ready to eat	46 (14.6)
	Ready to heat	81 (25.8)
	Ready to cook	185 (58.9)
	Others	2 ( 0.6)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가공편의식품 선택속성을 비교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항목별 스트레스를 평균화하였다(Fig. 2).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누적빈도에 따라 2.06점 이하인 106명(33.8%)을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집단으로, 2.07~2.61점인 109명(34.7%)을 스트레스 정도가 중간인 집단으로, 2.62점 이상인 99명(31.5%)을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 5. 연구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요인 적재량이 낮은 항목과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낮은 항목은 제외되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 결과 3개의 요인이 분석되었다. 요인 1은 ‘가사업무 스트레스’, 요인 2는 ‘가족관계 스트레스’, 요인 3은 ‘재정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요인 1, 요인 2 각각 0.845, 0.723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요인 3의 재정 스트레스는 0.568로 다소 낮았으나 가정생활에서 초래되는 주요 스트레스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기로 하였다.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 결과, 총 2개의 요인이 분석되었다. 요인 1은 직



**Figure 2.** Stress of the subjects.

원의 추천, 광고, 유행 등에 의한 구매와 관련된 항목으로 ‘주변영향인식 구매’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식품의 품질 확인 및 자신의 신념에 따른 구매와 관련한 내용으로 ‘소신구매’로 명명하였다.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요인 1과 요인 2가 각각 0.772, 0.741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가공편의식품 선택속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음식의 위생 및 안전, 신선도, 영양, 국내산 함유율 및 원산지, 맛에 관한 내용으로 ‘품질’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조리 방법과 시간에 관한 항목으로 ‘편의성’, 요인 3은 용기와 포장단위에 관한 내용으로 ‘포장’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가격’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0.891, 0.857, 0.731, 0.738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 6. 스트레스 정도와 각 요인과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각 요인과의

**Table 4.** Explorative factor analysis of stress, selection attribute and purchasing attitude of convenience & processed food.

Variables	Question	Factor				Cronbach's alpha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Stress	It was hard to help out children and husband	0.811				0.845	
	I couldn't do what I want because I was tied to housework	0.766					
	There was a disagreement among family members about housework sharing	0.647					
	I felt that family life was meaningless and simple	0.624					
	I felt tired and exhausted after housework	0.612					
	I had an argument with my husband		0.768				0.723
	I had lived apart from husband or had separation room		0.749				
	I did not have a conjugal or communal hobby with husband		0.688				
	I had a disagreement with my parents(my parents, My-in-law)		0.589				
	I didn't get the money I lent			0.717			0.568
	I lost money by investing in real estate or securities			0.654			
	I spent a lot of money on family events such as marriage and 60 years celebration			0.548			
	Eigenvalues	3.742	2.394	2.249			
	Cumulative %	20.788	34.086	46.579			
Selection attribute of convenience & processed food	I tend to buy food recommended by staff	0.760				0.772	
	I tend to buy food with curiosity by advertising	0.759					
	I tend to buy trendy food first	0.729					
	I tend to buy event and gift item (1+1)	0.671					
	I tend to buy a food considering other customer's comment	0.664					
	I check the ingredients when buying groceries		0.767				0.741
	I check the expiration date when buying groceries		0.764				
	I do comparison shopping when new products come out		0.742				
	I think good foods such as premium products are worth the cost		0.699				
	Eigenvalues	2.647	2.298				
Cumulative %	29.410	54.946					

Table 4. Continued.

Variables	Question	Factor				Cronbach's alpha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Purchasing attitude of convenience & processed food	I choose food considering sanitation and safety	0.871				0.891
	I choose food considering freshness of the food	0.866				
	I choose food considering the nutrition	0.775				
	I choose food considering domestic content and country of food	0.745				
	I choose food considering the taste	0.718				
	I choose food that take short time for preparation or eating a meal		0.841			0.857
	I choose food a simple recipe		0.794			
	I choose convenient packing			0.758		0.731
	I choose product with appropriate packing unit (one pack, serving)			0.693		
	I choose cheaper product when amount of food is similar				0.836	0.738
	I choose cheaper product compared to quality				0.819	
	Eigenvalues		4.331	2.771	2.264	1.714
Cumulative %		25.477	41.778	55.097	65.178	

Table 5. Stress factor, selection attribute and purchasing attitude of convenience & processed food of the subject according to stress level. (Mean±SD)

Factor	Variables	Low level group	Mid level group	High level group	F-value (P)
Stress	Housework stress	1.78±0.62 <sup>a</sup>	2.57±0.47 <sup>b</sup>	3.40±0.71 <sup>c</sup>	183.89*** (0.000)
	Family relation stress	1.60±0.58 <sup>a</sup>	2.42±0.70 <sup>b</sup>	3.12±0.74 <sup>c</sup>	129.667*** (0.000)
	Economic stress	1.76±0.64 <sup>a</sup>	2.16±0.68 <sup>b</sup>	2.84±0.81 <sup>c</sup>	64.229*** (0.000)
Purchasing attitude of convenience and processed food	Peripheral influence purchase	2.50±0.76 <sup>a</sup>	2.74±0.66 <sup>b</sup>	2.82±0.67 <sup>b</sup>	6.991** (0.001)
	Conviction purchase	3.27±0.81	3.37±0.65	3.28±0.71	1.440 (0.238)
Selection attribute of convenience and processed foods	Quality	3.86±0.78	3.91±0.70	3.77±0.70	1.050 (0.351)
	Convenience	3.27±0.81	3.37±0.65	3.21±0.66	1.440 (0.238)
	Packing	3.33±0.10	3.49±0.83	3.49±0.69	1.171 (0.311)
	Price	3.23±0.96 <sup>a</sup>	3.61±0.79 <sup>b</sup>	3.47±0.88 <sup>ab</sup>	5.416** (0.005)

Descriptor (1: very unlikely~5: very likely)

<sup>a,b,c</sup> Scheffé test

\*\*P<0.01, \*\*\*P<0.001

관계는 Table 5와 같다.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가사업무, 가족관계, 재정 스트레스에서 각각 3.40±0.71, 3.12±0.74, 2.84±0.81로 나타나 스트레스 정도가 중간,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특히, 가사업무 요인은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중간, 높은 집단이 각각 1.78±0.62, 2.57±0.47, 3.40±0.71로 가족관계나 재정 스트레스보다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를 살펴본 결과, 주변영향인식 구매태도는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2.50±0.76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으며, 스트레스가 중간, 높은 집단은 각각 2.74±0.66, 2.82±0.6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소신구매 태도는 스트레스 중간 집단이 3.37±0.65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는 소신구매 태도가 스트레스 낮은, 중간, 높은 집단에서 각각

3.27±0.81, 3.37±0.65, 3.28±0.71로 나타나 주변영향인식 구매태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선택속성을 살펴본 결과, 가격요인은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3.23±0.96)이 중간 집단(3.61±0.79)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 $P < 0.01$ ), 품질은 스트레스가 낮은, 중간, 높은 집단에서 각각 3.86±0.78, 3.91±0.70, 3.77±0.70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7.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및 선택속성에 관한 모형개발을 위해 AMOS를 통해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가 권장수준을 만족하였으므로 전반적인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6, Fig. 3).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은 구매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사업무와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에 정(+)의 영향을, 재정 스트레스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중 주변영향인식 구매는 편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5$ ), 소신구매는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은 가공편의식품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사업무와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선택속성에 부(-)의 영향을 주는 반면, 재정 스트레스는 선택속성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였다.

## 고찰

본 연구는 주부의 스트레스 정도 및 요인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선택속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주부의 식습관 및 식행동, 가공편의식품 이용 현황, 스트레스,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선택속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외식 빈도는 주 1~2회(69.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4)의 연구에서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외식 횟수는 주 1~2회(83.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외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Kim 2010),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적 사회진출이 낮고 가정주부 역할을 하면서 외식의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공편의식품 구매빈도는 주 1~2회가 절반 이상의 비율(60.5%)을 차지하였다. 이는 대형마트 외에도 편의점을 주로 이용

Table 6. Hypothetical model fit index.

Model	$\chi^2$ (P) <sup>1)</sup>	$\chi^2/df$ <sup>2)</sup>	GFI <sup>3)</sup>	AGFI <sup>4)</sup>	IFI <sup>5)</sup>	NFI <sup>6)</sup>	CFI <sup>7)</sup>	RMR <sup>8)</sup>	RMSEA <sup>9)</sup>
Optimum model	(0.05)	0~2	0.90~1	0.90~1	0.90~1	0.90~1	0.90~1	0~0.05	0~0.05
Hypothetical model	696.630 (0.000)	1.853	0.873	0.843	0.912	0.826	0.910	0.054	0.052
Result	Unfit	Fit	Accept	Accept	Fit	Accept	Fit	Fit	Fit

<sup>1)</sup>  $\chi^2$ : Chi-square

<sup>2)</sup>  $\chi^2/df$ : Chi-square divided by degree of freedom

<sup>3)</sup> GFI: Goodness of fit index

<sup>4)</sup>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sup>5)</sup> IFI: Incremental fit index

<sup>6)</sup> NFI: Normed fit index

<sup>7)</sup> CFI: Comparative fit index

<sup>8)</sup> RMR: Root mean residual

<sup>9)</sup>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하는 1인 가구 및 대학생(Kang 2014; Woo 2017)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가공편의식품의 특성상 접근성이 높거나 편리함을 중시하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 가정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의 생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선호하는 가공편의식품 유형으로 ‘간단 조리 후 먹는 음식(58.9%)’이 가장 많았으나 Kang(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유형으로 ‘바로 먹는 음식’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간단한 끼니 해결을 위해 높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학생들과 달리 주부들은 조리과정을 거치더라도 가정식사 준비를 간편화하기 위한 음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사업무 요인은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중간, 높은 집단이 각각 1.78±0.62, 2.57±0.47, 3.40±0.71로 가족관계나 재정 스트레스보다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 스트레스의 정도와 상관없이 주부들이 전반적으로 가사업무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h(2007)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 여성의 생활 스트레스는 가사노동 문제가 가장 높았으며, Choi(2003)는 맞벌이 가정 여성의 경우 가사, 자녀 문제에서 남성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스트레스가 낮은 주부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여성 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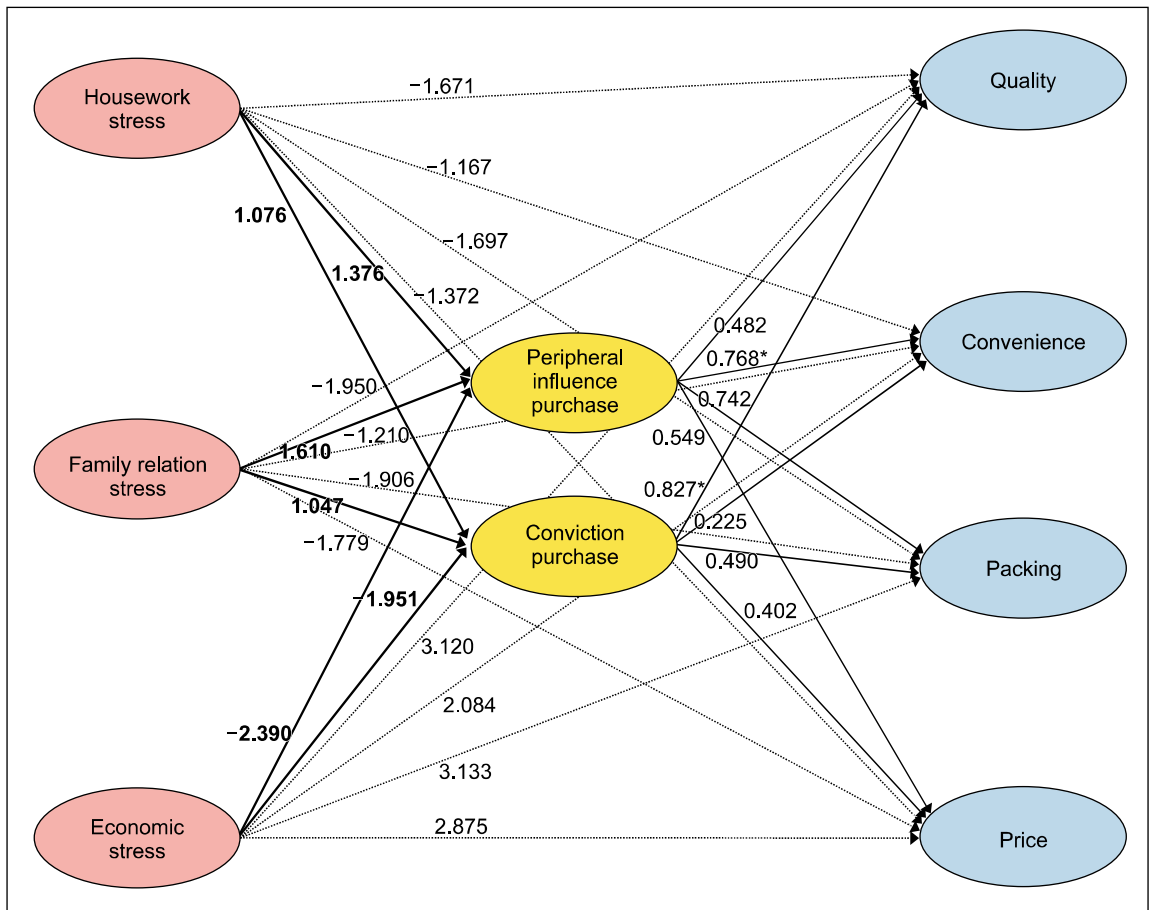


Figure 3.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stress, purchasing attitude and selection attribute of convenience and processed food (\*P < 0.05).

에게 주어지는 가정 내 역할과 업무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부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공편의식품 구매 시 주변영향을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1$ ). 또한 Shin(2011)의 연구에서 주부들은 가공식품 구매에 대한 선호도는 낮으나 섭취빈도는 높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주부들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매체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구매태도를 갖기 쉬우므로 올바른 가공편의식품 이용 및 소비를 위해 광고매체와 주변 환경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소신구매 태도가 주변영향인식 구매태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Jung(2016)의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구매 시 소비자 만족이 높을수록 소신구매가 높아지며 이때 조절 효과로써 부정적 정서가 낮을수록 소신구매 선택의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부들이 가공편의식품을 구매할 때 광고를 통한 호기심이나 유행하는 식품 등 주변영향을 인식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두는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선택속성을 살펴본 결과 가격요인은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중간 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P < 0.01$ )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공식품에 부정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품질은 스트레스가 낮은, 중간, 높은 집단에서 각각  $3.86 \pm 0.78$ ,  $3.91 \pm 0.70$ ,  $3.77 \pm 0.70$ 으로 높게 나타나 가정의 식사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은 편의성 및 가격과 포장 등 식품의 외적인 면보다 품질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및 선택속성에 관한 모형개발을 위해 AMOS를 통해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요인이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와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공편의식품의 구매태도 중 주변영향인식 구매는 선택속성 중 편의성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P < 0.05$ ) 소신구매는 품질에 정(+)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업주부의 스트레스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 및 선택속성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314부를 통계 처리에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자는 50대가 137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연수는 20년 이상이, 가족의 수는 4명이 가장 많았다. 식습관은 과반수(52.2%)가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외식 빈도는 주 1~2회가 가장 많았다. 가공편의식품의 구매 빈도는 주 1~2회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대형할인마트(61.5%)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있었으며, 구매 용도는 가정 식사용(61.1%)이, 선호하는 유형으로는 ‘간단 조리 후 먹는 음식(58.9%)’이 가장 많았다.
2.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는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주변영향인식 구매태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행하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광고를 통한 호기심 유발, 직원의 추천 등 주변영향을 인식하는 구매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선택속성은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격 측면을 낮게 고려하였으며, 유의하지 않았으나 스트레스가 높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포장을 고려하고 품질, 편의성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3. 스트레스 요인이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와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공편의식품의 구매태도 중 주변영향인식은 선택속성 중 편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P < 0.05$ ), 소신구매는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P < 0.05$ )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생활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가공편의식품 구매태도에 따라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가정의 식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주부의 식품 선택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구매행동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주부의 스트레스에 따른 가공편의식품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로 본 연구는 주부의 스트레스에 따른 가공편의식품 구매 및 선택의 관계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 경기지역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식품 선택에 보다 영향력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올바른 식생활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ORCID

김난희: <https://orcid.org/0000-0001-7754-3589>

박영일: <https://orcid.org/0000-0002-8771-9207>

주나미: <https://orcid.org/0000-0002-8205-0399>

## REFERENCES

Choi YS (2003): (A) study on the family stress and stress-coping method of dual earner social welfare worker: centering

around at Daejeon and Choongcheong-southern province. Masters degree thesis. Mokwon University. pp.5-7, 34-35

Hong SK (2011): (A) study on processed food purchas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urban housewives' food related lifestyle. Doctors degree thesis. Kyonggi University pp.12, 36-37, 97-98, 108-109, 118-119

Jung YH (2016): A study on the effects of marketing mix strategy and product selection attribute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purchase behavior of processed foods. - with the moderating roles of consumer's affectivity -. Masters degree thesis.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pp.78-84, 86-89

Kang HY (2014):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behavioral patterns of HMR by lifestyle. Masters degree thesis. Suwon University. pp.26-29

Kim HJ (2014):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nutrition knowledge, nutrition attitude, and processed-food purchasing behavior in mothers of having young children. Masters degree thesis. Chung-ang University. pp.9, 42-43

Kim JH (2010): A study on the stress and food habit of adults in Ulsan. Doctors degree thesis. The Ulsan University. pp.20-22, 31-33

Kim S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from housewives' attitudes toward dietary life and their health. Korean J Food Cook Sci 22(6):783-791

Ko YS (2012): A study on the purchasing characteristics of side dishes. Masters degree thesis.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10-12

Lee HJ (2017): (A) study on eating-alone consumer's choice attributes of convenience food: focusing on consumption values. Masters degree thesis. Chung-ang University. pp.53-55

McCubin HI, Wilson L, Patterson JM (1979).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FILE). Available from: [http://panel.kicce.re.kr/eng/publication/01\\_02.jsp?mode=view&idx=21284&startPage=20&listNo=18&code=PanelToolsproFilesEng&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http://panel.kicce.re.kr/eng/publication/01_02.jsp?mode=view&idx=21284&startPage=20&listNo=18&code=PanelToolsproFilesEng&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 Accessed September, 2018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4). Consumer attitude survey of processed foods. Available from: <https://www.atfis.or.kr/article/M001040000/view.do?articleId=1360&page=3&searchKey=&searchString=&searchCategory=>. Accessed September, 2018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 Consumer attitude survey of processed foods. Available from: [https://www.atfis.or.kr/mobile/article/M501020000/view.do?articleId=2925&page=2&search\\_Category=CD00000910](https://www.atfis.or.kr/mobile/article/M501020000/view.do?articleId=2925&page=2&search_Category=CD00000910). Accessed September, 2018
- Nam SD (2008): The prediction model of mid-life women's family stress and mental health. Masters degree thesis. Chung-Ang University. p.10
- Oh M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wives' life stress and coping style of middle-aged wome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Masters degree thesis. Chunnam University. pp.3, 31
- Seo HH (2007): The comparative study of eating habits by the stress type of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area. Masters degree thesis. Nambu University. p.46
- Seo JH, Kim YK (2016): Mothers' consum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s influences their children's dietary life in Kyungpook province. J Korean Home Econ Educ Assoc 28(4):111-122
- Shim MS (201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ilver generation lifestyle on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HMR choice attribute. Masters degree thesis. Kyonggi University. pp.78-79
- Shin JH (2011): (A) study on perception and actual use of processed food among housewives: centering on housewives in Seoul. Masters degree thesis. The KonKuk University. pp.1, 10-11, 16-17, 23-24, 50
- Won MS (2013): Comparison of health status, dietary habit, and diet quality between depressed women and normal women: Based on the 2013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Masters degree thesis. The Dongduk Women's University. pp.30-33, 57-62
- Woo WS (2017):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by the type of HMR according to the benefits pursued in dietary life: focused on single-person households. Masters degree thesis. Dongkuk University. pp.45-46, 62-64
- Yang DH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unctional benefit, psychological benefit, product attributes,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HMR. Masters degree thesis. Kyonggi University. pp.143-147